

“행복한 전북 · 잘사는 전북 만들겠다”

김춘진 민주당 도당 위원장, 전북도지사 출마선언... “여성부지사 임명 · 청년 보좌역 신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13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전북! 행복한 전북,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경선에 대해서도 “지지가반이 송 지사보다는 불리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후보보다 조직력이 뒤졌지만, 경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한 전력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전북도가 재정자립도면에서 30.89%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지만 국회와 정부 중앙 인맥으로 보완한다”며 잘 사는 전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정은 투명하게 해야 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통해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도지사가 되면 여성부지사를 임명하고 청년 보좌역을 신설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장을 돕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지사 실과 민원 창구를 핫라인으로 연결해 도 민원러분과 24시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도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도정정책에 반영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되어진다.



13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전주에 있는 전북도당 당사에서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도정의 유능한 인재들과 힘을 모아 강한 전북, 잘사는 전북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춘진 위원장은 부안 출신으로 전주교과 경희대 치대를 졸업, 김대중 전 대

통령 치과 주치의, 17~19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김관영,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9일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을 개정안에는 대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제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자의 친척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의 채용 시스템이 허술해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채용단계별 합계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 등 각 심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는 취업을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낸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잘못된 행태”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금수저의 나라’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갈 바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광역 · 기초의원 32명, 민주평화당 입당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전북 광역 · 기초의원들이 대거 민주평화당으로 입당한다.

13일 전북지역 광역 · 기초의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힘을 모아 민주평화당 동지들과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으로 입당한 의원들은 32명(도의원 6명 · 기초의원 26명) 가량이다.

이들은 “2년 전 호남에서 어렵게 가꿔 온 당대의 가치와 제당의 노력은 안철수 대표의 직폐와의 동침에 처참이 무너졌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위해 민주평화당으로 입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다가오는 시간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당이 주목받는 시간, 서민과 중산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간, 개혁을 통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의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입당이 당의 위연을 확장하고 한걸음 더 국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인 민주평화당에서 대화와 타협, 절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바른미래당 초대 공동대표에 박주선 · 유승민

13일 공식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초대 대표로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게 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출범대회를 갖고 바른미래당의 정식 창당 선포에 앞서 가진 양당 합동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사무총장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사무부총장은 바른정당 김성동 전 의원이 내정됐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40석이었던 국민의당 보다 규모가 작아진 의석 30석의 원내 3당으로 출발한다. 국민의당에서 21명, 바른정당에서 9명의 의원들이 합류했다. /뉴시스

민주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은 문 대통령, 취임 첫 화상국무회의 주제

안호영 의원 예측... 이춘석 의원은 현재 중앙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위원직을 사임하고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참여하려 한다”고 도지사 선거 출마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직을 사임함에 따라 전북도당을 이끌 차기 위원장 선출에 지역정가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임 위원장의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천 잡음 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맡아야 하는 등 어깨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당 내에서는 안호영(원주 · 무주 · 진안 · 장수) 국회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영 · 이춘석(익산갑) 의원 등 2명이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은 현재 중앙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고 지역 위원장들의 경우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의 역할이 커 임명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도내 지역위원장들은 오는 14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모아지면 중앙당에 전달하게 된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올 때까지는 사무처장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당 위원장의 경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 70여 안건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진행된 화상국무회의였다. 이날 정부는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은 탈북민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로 가능케 하고 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회의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뉴시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장애인 입학 · 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산업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 ·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생기게 됐다.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위약계승 및총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